

## 광주·나주 SRF 논란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 쓰레기·에너지 '대란'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  
나주로 반입 중단 6개월  
양과동에 9만2천 톤 매립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영 중단  
주민들 2.5배 비싼 비용 우려

광주지역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이 지난 1월 중단된 뒤 광주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9만 2000여톤의 생활폐기물(가연성)이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과동 매립장 내의 SRF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SRF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폐기물이 매립되면서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2035년)이 크게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나주지역 일부 주민은 지금보다 2.5배가량 비싼 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SRF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관공서와 병원, 마트, 기업 등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는 등 광주시와 나주시 간 SRF 반입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양 지역민이 떠안게 됐다.

〈관련기사 3면〉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과동 SRF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된 지난 1월 15일 이후 하루 530톤씩 현재까지 9만 2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양과동 매립장에 묻고 있다. SRF생산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생산된 SRF 연료가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제대로 전달됐으면 매립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폐기물을 양과동에 묻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도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

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상무소각장 가동중지를 앞두고 그 대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SRF생산시설을 조성했다. 상무소각장에서 불태웠던 생활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또 SRF 생산을 통해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30년~50년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급속한 도시화로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양과동 이외의 쓰레기 매립장을 찾지 못하고 있어 SRF 생산을 통해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는 게 광주시로서는 최선의 쓰레기 대책이었다.

하지만 나주시가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에서 나온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며 뒤늦게 반발하면서 SRF 생산이 중지되고 모든 쓰레기 정책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SRF 생산도 중단되면서 쓰레기 대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마트와 병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현재 매립이 금지돼 있어 소각을 해야 하는데 광주에서는 SRF생산시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15곳 가량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한 관계자는 "상무소각장 폐쇄 후 SRF생산시설이 유일한 처리시설인데 가동이 중단되면 지역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면서 "사업장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광주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거의 다 왔다" ... 길이 7.22km·높이 310m 새천년대교 폭염 속 막바지 공사



신안 압해도와 압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상판 작업(빨간색 점선 내)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9월 착공한 새천년대교는 연장이 7.22km인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교량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단일 교량에 현수교와 사장교를 함께 배치하는 형태다. 총사업비 5689억원을 투입한다. 주탑(높이 310m)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새천년대교가 개통하면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교량과 야간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 주·야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양 37.8℃ 펄펄 끓는 광주·전남

### 함평 주포항 인근 양식장 돌돔 수만마리 폐사 ... 정부 "폭염도 자연 재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2일째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의 기세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양·여수 등지에서는 벌써 37.8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다.

〈관련 기사 7면〉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다음달 1일까지 35도 안팎의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 기간 광주·전남은 평년(최고기온 28~32도)보다 2~3도 가량 높은 온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에선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가족에 이어 양식장까지 폭염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함평군 함평을 주포항 인근 양식장에서는 수만마리 돌돔이 폐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여수 3차례, 광양 2차례, 순천 1차례 오존주의보가 발효된 뒤 해제됐다.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오존은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한편, 정부는 폭염도 '자연 재난'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투입 ... 신문·방송사엔 보도검열단 파견

### 靑, 계엄령 추가 문건 공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세부계획까지 담긴 부속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이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국회의

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을 사법처리하여 정족수 미달을 기도하는 한편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계획 등도 담겼다.

〈관련 기사 2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남 국방부에서 받은 이런 내용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돼 있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투입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전했다.

이런 문건에는 계엄 후 국회, 국가정보원, 언론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자세히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김산 무안군수 민선 7기 구상  
KTX·공항...서남권 중추도시 비상 ▶11면  
43세 KIA 선별투수 임창용  
나이는 숫자일 뿐 가능성을 봐달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6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동7단), 복합회합유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sub>2</sub>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